

# 관루(關露)의 삶과 글쓰기 고찰\*

— 잡지 《여성 女聲》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安有暲\*\*

## <목 차>

1. 들어가며
2. 협력과 저항의 경계 안에서
3. 유폐된 자의식의 함몰
4. 나오며

## 1. 들어가며

이 세상 어딘가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가느다란 물줄기들이 한데 모여, 역사라는 굵직한 물줄기를 형성한다. 인류와 역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개인의 삶은 역사로부터 주어진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 위에서 존재하고, 매 순간 모종의 것을 선택하면서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 인간의 대부분은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 흐르지만 인간 내면에는 또한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꾸고자 하는 의지, 즉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압력 및 변화를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자 하는 ‘저항’이라는 장력(壯力)이 내재하고 있다. ‘저항’은 이따금씩 ‘희생’이라는 요소와 공존하는데, 이러한 저항과 희생은 개인의 역사를 뒤바꿔놓기도 한다.

\* 이 연구성과는 2014년도 BK21플러스 고려대학교 중일 언어·문화 교육·연구 사업단의 참여학생으로서 작성한 것임.

\*\* 高麗大學校 中日語文學科 博士科程.

중국의 여류작가 관루(關露)는 조국과 혁명을 위해 한 평생 '저항'하고, 그에 뒤따르는 '희생'의 온갖 후폭풍을 감내하며 평생을 살았다. 관루에게 있어서 '저항'은 그 당시 지식인들과는 다르게 좀 더 특별한 의미의 행위였다. '혁명 간첩'으로서의 특수 임무를 통해 잠복된 상태의 '저항'을 했기 때문이다. 두 차례에 걸친 그녀의 임무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으며, 저항의 양상 또한 변화시켰다. 불행한 역사의 극단적인 지점을 관통하고 있는 관루의 삶 속에서 작가의 내면의식을 살피고, 그로 인해 추동된 글쓰기 패턴을 토대로 관루가 역사적 상황의 비극적인 지점을 어떻게 선택하고 관통했는지 고찰해 볼 것이다. 이는 관루 개인의 삶과 문학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역사와 문학세계에도 다양한 문제의식과 시사점을 안겨줄 것이다.

중국 근현대사에서 굵직한 지점을 관통하고 있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관루에 관한 연구는 중국 대륙에서조차 미흡한 실정이며, 국내에서는 아직 단 한 번도 연구되지 않은 생소한 작가이다. 때문에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하게나마 관루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sup>1)</sup>

관루(1907-1982)는 시 문학을 비롯해 산문, 소설, 평론 및 번역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보이며 1930년대 상하이(上海)에서 장아이링(張愛玲), 수칭(蘇青), 판류다이(潘柳黛)와 함께 '민국 4대 재녀(才女)'로 이름을 떨친 유명 작가였다. 그녀는 또한 중국 공산당과 중국좌익작가연맹(左聯), 중국시가회(中國詩歌會), 상하이문화계구망협회(上海文化界救亡協會) 등 진보적

1) 관루 생애에 관한 내용은 丁言昭, 《關露傳》(上海: 上海文化出版社, 2009) 및 아래와 같은 중국 학술지 논문들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丁言昭, <關露生平的一些史料>, 《新文學史料》 1989年04期.

柯興, <生命与忠誠——女作家關露的諜海生涯>, 《前進論壇》 2004年07期.

韓三洲, <丹心不怯斷頭台——讀《關露啊關露》>, 《中國經濟時報》 2001年4月12日.

于繼增, <關露:諜海沉冤四十年的悲情人生>, 《文史博覽》 2007年08期.

尹騏, <女詩人關露的苦難人生——一个三十年代的左翼作家的遭遇>, 《炎黃春秋》 1994年 08期.

叶細細, <關露 諜海才女的傳奇人生>, 《八小時以外》 2011年07期.

夏明亮, <一个不該被遺忘的女杰——共產黨員關露生平剪影>, 《党史博覽》 1998年10期.

周宗奇, <与魔鬼共舞——記關露打入汪偽76号特工總部>, 《滄桑》 2001年02期.

王嵐, <關露——敵偽76号里的神秘女子>, 《党史文苑》 2006年15期.

인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혁명 운동에 가담하여 이른바 ‘여성 좌익 혁명 작가’라는 칭호도 얻었다.

그러나 1939년, 관루는 자신의 운명을 뒤바꾸는 역사적 선택의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 공산당 조직으로부터 ‘혁명 간첩’이라는 특수 임무를 지시받은 것이다.<sup>2)</sup> 그 후 그녀는 당 조직에게 자신을 옌안(延安)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조직은 이를 거부하고 그녀에게 두 번째 ‘혁명 간첩’으로서의 또 다른 임무를 맡겼다.<sup>3)</sup> 1943년, 관루는 다시 한 번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일본이 제시한 대동아공영권 논리를 적극 따르면서 왕징웨이(汪精衛) 정부가 일본의 편에서 참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大東亞文學者大會)’<sup>4)</sup>에 참가한 후 대외적으로 ‘한간(漢奸)<sup>5)</sup> 문인’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관루는 일본 패망 후인 1945년 9월, 비로소 쑤베이(蘇北) 해방구(解放區)로 돌아갈 수 있었다. 1982년 3월 23일, 중앙공안부가 <관루 동지에 대한 무죄 판결문 關於關露同志的平反決定>을 발표하게 되면서 1940년대에 ‘혁명 간첩’으로 활동했던 관루의 임무가 처음으로 공개됐으며 이를 통해 그녀는 ‘한간’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되었다. 1982년 12월 5일, 병상에 있던 관루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세상과 작별한다. 비록 그녀

- 2) 원래 이 임무는 관루의 여동생 후슈핑(胡綉楓)에게 주어진 임무였으나, 그녀는 다른 임무를 수행 중이었기에 언니인 관루에게 이 임무를 부탁했다. 주요 임무 내용은 국민당 왕징웨이(汪精衛) 정부의 상하이 총본부인 후시(滬西) 지스페이얼루(极司非尔路) 76호에 잠입해 리스퀸(李士群)의 모반 선동 계획을 맡아 당에 기밀 정보를 제공하고, 리스퀸을 공산당으로 복귀시키도록 하는 일이었다.
- 3) 때는 1942년,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가 편집장이었던 일본 대사관 및 해군 보도부 주관 잡지 《여성 女聲》의 편집을 맡아 다무라 도시코에게 접근하고, 이를 통해 일본 국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캐내는 임무였다. 관루는 잡지에 다양한 성격의 글을 투고하였는데 글에는 공산당 지하 조직에 보내는 암호가 숨어 있었다.
- 4) ‘대동아문학자대회’는 1941년 12월 8일 아시아-태평양전쟁의 개전을 계기로 ‘일본문학보 국회’가 결성(1942.5.26.)되면서부터 준비단계에 착수한 이래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대회의 근본목적은 “대동아전쟁하 문화 건설이라는 공통의 임무를 지고 공영권 각지의 문학자가 한데 모여 함께 그 포부를 갖고 서로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한다”(尾崎秀樹 1991, 19)는 데 있었다. 이혜진, <문인 동원의 병참학>, 《아태연구》제20권 제3호(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2013), 266쪽.
- 5) 본문에서는 단어 채택에 있어서 ‘한간’ 뿐만 아니라 ‘배반자, 매국노, 변절자’ 등의 ‘한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문맥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의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그 누구보다도 굴곡 많은 삶을 살았던 그녀의 최후는 돌이킬 수 없는 슬픈 역사 속 비극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본 논문은 관루의 삶과 글쓰기 실천 양상을 통해 특수한 저항적 실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고, 전쟁과 가부장제 사회의 이중적 억압을 받고 있던 '여성'을 바라보는 관루의 글쓰기 양상을 통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불행한 역사로 인해 그 당시 저항과 협력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관루의 고뇌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초극적인 상황 속 결국 윤희되고 유약해진 그녀의 자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비극적 운명으로 점철되어진 여성 지식인의 삶이 현재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 2. 협력과 저항의 경계 안에서

전 인류의 역사 안에서 '식민지', '점령지'라는 특수한 상황 및 특수 시기는 대부분 '저항'과 '협력' 혹은 '지배'와 '저항'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이항대립적 도식을 바탕으로 한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존 방식의 틀을 모색하여 나온 공간이 바로 '회색 지대'이다. '그레이존(Gray Zone)'이라고도 불리는 회색 지대는 전략무기인지 전술무기인지 그 판단이 어려운 무기를 지칭하는 회색무기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집단 및 지역의 중간지대를 뜻한다.

이 개념을 제시한 대표적인 인물은 이탈리아 화학자이자 작가인 프리모 레비(Primo Levi, 1919-1987)<sup>6)</sup>이다. 그는 회색지대를 "주인과 노예의 두 진영

6) 1919년 토리노의 유대인 가문에서 출생한 프리모 레비는 토리노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과학도였고 1938년 파시스트 체제가 인종법을 공포하여 유대인 탄압을 시작하자 1943년 저항조직에 가담했다. 1945년 10월 토리노로 돌아온 레비는 한편으로는 화학자로서 활

이 갈라지면서도 모이는 곳,” “대단히 복잡한 내적 구조를 가지며 우리의 판단 필요성을 그 자체로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농후한” 영역으로 불완전하게 정의될 수 있을 뿐이라 지적했다.<sup>7)</sup> 또한 그는 우리/그들, 정복자/피정복자, 좋은 사람/나쁜 사람, 가해자/희생자, 친구/적과 같은 단순하고도 안온한 이분법을 넘어 그것을 성찰함으로써 인간 그 자체를 이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드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기능을 지닌 지적 도구<sup>8)</sup>로 회색시대의 개념을 제시하였다.<sup>9)</sup>

상하이 1937년-1941년 12월 ‘고도(孤島)’시기부터, 태평양 전쟁 발발 1941년 12월 8일-1945년 ‘피점령(淪陷)’시기까지 약 8년의 기간 동안 일제 점령 하에 놓이게 된다.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하이는 제도적인 탄압과 경제 파탄 등으로 ‘암흑의 세계’에 놓이게 되고, 그 당시 그곳에 남아 있던 지식인들은 개인의 생존과 공공 도덕사이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즉 한쪽에는 개인의 생존,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고려 및 개인적 이익의 추구가, 다른 한쪽에는 애국적인 헌신과 존엄이 자리하고 있었다.<sup>10)</sup> ‘딜레마’가 전하는 단어의 뉘앙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덕적 판단에 기준한 ‘저항’과 ‘협력’이라는 단순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위에 피점령 시기 상하이를 올려놓고 분석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해외 중국학자인 포셱 푸(Poshek Fu, 傅葆石)는 ‘회색시대’의 개념을 차용한 후 그 당시 ‘회색 상하이(灰色上海)’ 속 중국 지식인들의 대응 방식을 ‘은일(소극적 저항), 저항(적극적 저항), 협력

---

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947년 우여곡절 끝에 출간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증언록『이것이 인간인가』를 시작으로 증언, 소설, 시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였다. 김용우, <프리모 레비(Primo Levi)의 “회색시대”>, 《역사와 담론》 제46집(湖西史學會, 2007), 242-243쪽 참고.

- 7) 김용우, 위의 논문, 255쪽.
- 8) François Carasso, Primo Levi. Le parti pris de la clarté (Paris: Berlin, 1997), p.147. 김용우, 위의 논문, 246쪽 재인용.
- 9) 국내 식민지 인식의 전환을 제기한 논문으로는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시대》, (서울: 역사비평사, 2003)의 단행본 참고. 이 책은 일제 식민지 시기의 지배와 저항이라는 이분화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 근대사상(近代史像)을 비판하는 내용, 한국 근대민족주의의 특성을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 등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10) [美]傅葆石 著 張霖 譯 劉輝 校, 《灰色上海, 1937-1945 中國文人的隱退、反抗與合作》,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12). 4쪽.

(친일 행위)'의 세 가지 패턴으로 분류하여 상하이의 문화 공간을 재구축하였다.<sup>11)</sup>

그렇다면 이 시기 관루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을까?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그녀는 원래 적극적인 저항 정신으로 무장한 '항전 작가'였지만, 역사 자체가 부여한 특수한 사명으로 인해 그 본연의 모습들을 숨긴 채 협력의 활동을 했다. 즉 내재적으로는 저항 의식이 들끓었지만, 집단, 국가 등으로 표상되는 거대한 타자 앞에서 강제적인 외재성을 가진 협력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첩보활동을 펼치던 시절 관루의 태도와 글쓰기에서는 '은일, 저항, 협력'의 대응 방식이 착종되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관루가 두 번째 '혁명 간첩'으로서 활동했던 시기 잡지 《여성 女聲》에 기고한 일련의 글들을 통해 뚜렷하게 포착 가능하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잡지 《여성》 속 텍스트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성》은 1942년 5월 15일에 창간하여 1945년 7월까지 총 38회 발행된 월간지이다. 일본 대사관 및 해군 보도부가 주관한 잡지로서 일본인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가 편집장을 맡았다. 《여성》 발간 초기에는 평론, 세계 지식, 여성과 직업, 교양, 견문, 위생, 오락, 문예, 가정(家政), 만화, 연극, 영화 등의 내용을 다루었으며, 나중에는 산문, 세계 여걸들, 아동란, 미용, 최신 유행 복장, 일어, 국제신문, 독자 사서함 등의 10여 가지의 항목을 증편했다.<sup>12)</sup>

《여성》은 그 당시 피점령 지역인 상하이에서 일제의 엄격한 통제 하에 발행된 대중문화잡지 중 하나였기에 '한간문화 잡지'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항전기 이전에 발행된 동명 잡지인 《여성》의 편집장이었던 왕이웨이(王伊蔚)는 훗날 자신의 저서에서 상하이 피점령 시기 잡지 《여성》에 대해 '피뢰정부 아래에서 발행된 《여성》의 편집장은 일본인이었고, 편집인들 대다수는 중국의

11) 원저 Poshek Fu, 《Passivity, Resistance, and Oollaboration: Intellectual Choices in Occupied Shanghai, 1937-1945》, Standford University Press, Standford, California, 1993. 중문판 [美]傅葆石 著 張霖 譯 劉輝 校, 《灰色上海, 1937-1945 中國文人的隱退、反抗與合作》,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12.

12) 王茜妮, 《關露在《女聲》中的言論研究》(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年), 8쪽 참고.

‘문화 한간’들이었다. 잡지가 발행되는 약 4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적지 않은 독을 뺐어냈다.”<sup>13)</sup>라고 악평하였다.

1943년 11월 16일, ‘상하이 문화출판연합회’가 주최하는 모임의 회원 명단에 관루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sup>14)</sup> 1942년-1945년, 관루가 두 번째 첩보 활동의 임무 수행을 위해 일본 주관 잡지 《여성》의 편집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그녀는 잡문, 평론, 통신문, 방문기, 영화 및 연극 평론, 소설, 시 등의 다양한 장르의 글 130편 이상을 잡지에 기고하였다.

관루가 첩보활동을 하며 편집위원으로서 글을 게재하던 때에 그녀에게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다. 관루 내면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저항적 태도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친일 감정을 반영하는 글을 쓰지도 않겠다는 다짐이 그것이다. 관루는 편집위원으로 가담하기 전에 일본인 편집장에게 자신은 문학만을 공부했으며,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므로 정치성이 담긴 문장은 쓸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절대 ‘대동아공영’을 제창하는 글을 쓰지 않으며, 당에 누를 끼치는 내용의 글을 쓰지 않겠다. 글의 주제는 풍경, 연애혼인문제, 가정생활, 여성문제, 봉건가정의 폐해 등으로 제한할 것이다.”<sup>15)</sup>라는 좀 더 구체적인 다짐의 내용을 당 관계자에게 드러내기도 하였다.

관루의 이러한 태도는 저항과 협력이라는 이분법적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색시대’라는 개념 속에서 그녀의 글쓰기 패턴을 주목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애국정신, 긍정적 메시지, 여성 계몽의식의 구현 등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지만, 외재적으로는 잠복된 저항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발로되는 동시에 소극적이고 모순적인 정서 또한 잉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13) 王伊蔚, <我與《女聲》>, 《聯合時報》, 1992. 丁言昭 著《關露傳》(上海: 上海文化出版社, 2009), 92쪽 재인용.

14) 文化出版報道文化日志: 上海文化出版界聯誼會, 出版月報, 제3/4기(1943.11), 9쪽. 신동순, <1940년대 상하이(上海) 출판문화정책과 대중문학잡지의 생존 전략: 『만상(萬象)』, 『대중(大衆)』, 『바이올렛(紫羅蘭)』, 『춘추(春秋)』를 중심으로>, 《中國現代文學》 제56권(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1), 83쪽 참고.

15) 王茜妮, 위의 논문, 11쪽.

관루의 글쓰기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과 그에 따른 다양한 글쓰기 패턴이 존재한다. 정치 및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글쓰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관루였지만 그녀 내면에는 여전히 들끓는 애국의 요소가 존재하여 전략적 저항의 정신을 드러낸 일련의 글들이 눈에 띈다. 그녀의 전략적 저항의 방법은 역사 속에서 실존하는 인물들의 묘사를 통해 자신의 애국정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문천상 文天祥>이라는 평론 글에는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다.

“민족의 영웅을 떠올려보자면 사람들은 남송 시기의 문천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천상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미 익숙한 내용이다. …… 유구한 역사 위에 있는 중화민국의 이 인물은 얼마나 비장하고, 영예로운가. 또한 문천상과 같은 이러한 유형의 인물로 인해 중화민국이 생존하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천상은 비록 모해 당했지만, 그의 용감함과 분노는 여전히 우주라는 공간 안에서 널리 퍼지며 견고한 중화민국을 결성한다.”<sup>16)</sup>

그녀는 원나라에 대항했던 남송의 민족 영웅 문천상이라는 인물을 주제로 한 역사극의 평론을 통해 현시대를 살아가는 중화민족들의 애국정신과 저항의 정신을 고무시키고 격려하고자 했다. 《여성》속 글쓰기에서는 직접적인 애국의 정서 혹은 민족의 정신을 표출하는 글은 쓸 수 없기 때문에 관루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드러냈으며, 당시 잡지를 읽는 상하이 피점령 지역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정신이 침투되기를 희망했다. 이러한 글쓰기 경향은 수많은 굴곡을 경험한 끝에 자신만의 전략적 저항으로서의 고도화된 반일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녀는 피점령 시기 상하이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고난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사실대로 묘사하며 이를 통해 당시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16) “談到民族英雄，大概人們總不會忘記南宋的時候有個爲國殉難的文天祥。關於文天祥的故事大凡讀過歷史的人都知道……而且會從悠遠歷史上感到做一個中華民國的人是多麼的悲壯，多麼光彩。也正是因爲有了許多像文天祥這種人物，中華民國才能夠生存，中國人民才能被世人所景仰而尊敬。文天祥雖然被敵人所謀害，但是他的英勇和憤怒仍然昂揚在宇宙之間，結成了千古不散的中華民國陰靈。”蘭(關露)，〈文天祥〉，《女聲》，1944，9：43-44.



“전시(戰時) 상황에서의 생활은 비록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훈련과 생활의 경험을 쌓게 해주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간은 위대한 시대가 우리 여성들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자, 좋은 경험임을, 또한 근검절약이라는 좋은 습관을 길러주게 하는 시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시대의 우리 여성들은 전시 상황의 단련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우리는 곧 강대한 신 중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새로운 해가 곧 도래한다. 비록 우리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단결된 용기를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sup>18)</sup>

관루는 조국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는 소극적 혹은 비관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인 목소리로 긍정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였다. 이러한 글쓰기 영역에서도 관루의 ‘감추어야만 하는, 그러나 감추어지지 않는’ 애국과 저항의 정신이 엿보인다.

1930년대 항전시와 같은 정치적 색채가 짙은 글들은 아니지만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전략으로 애국정신을 드러낸 관루의 일련의 글들을 통해서 관루 일생을 관통하는 ‘저항’의 코드를 발견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저항’의 코드가 이분법적인 저항의 정신에서 배태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타자 혹은 시대와의 관계망 속 내면의 신념으로 형성된 ‘저항’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관루는 불안한 신분으로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압박감 속에서도 근대적 지식인이자 작가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의식은 여성 담론에 관한 계몽적인 목소리로 표출된다. 이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잡지 《여성》의 발간 취지와 부합되는 계몽 담론으로서 비교적 수월하게 자신

17) “戰時的生活雖然給了人們不少的痛苦，但是在相反的一面也給了人們許多鍛煉和生活的經歷。希望我們大批的婦女都不忘記這個偉大時代給予我們的好教訓，好經歷，也把我們勤儉耐勞，不浪費物質，不浪費光陰的好習慣永遠保持下去，使我們這一代婦女，在戰時的鍛煉中變成新的一代，我們也就因此會有一個強健的新中國。” 芳君(關露)，〈我們要強壯起來〉，《女聲》，1944，11，4-5。

18) “新年快來了，雖然生活將要更加困難，但是我們該當拿出更多的勇氣，用我們團結的勇氣去抵擋一切的困難！” 芳君(關露)，〈從新年想到的〉，《女聲》，1944，8，4-5。

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었다. 《여성》은 창간호 발간사에서 잡지의 취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여성》이 가지는 세 가지 의의는 첫째, 여성들의 목소리와 여론을 담는다. 둘째, 여성들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 셋째,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발언한다.”<sup>19)</sup>

상하이 피점령 시기의 유일한 여성 잡지인 만큼 《여성》은 여성 담론을 주제로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를테면 여성과 문예, 여성과 종교, 여성 직업, 교육 등의 사회문제에서부터 여성 교양, 정조 등과 관련된 토론, 성공한 여성들에 대한 취재 탐방기, 세계 각지 여성들의 생활에 대한 소개 등과 관련된 내용까지를 모두 아우르며, 남녀를 불문하고 투고할 수 있었지만 편집자들은 최대한 여성들의 글을 많이 실고자 했다.<sup>20)</sup>

문학의 장에서 여성들은 늘 여류 작가라는 이름으로 문단에서 따로 관리되었다. 단지 분리의 효과를 강조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여성 문단과 여성 작가들의 수준을 열등한 무엇으로 묘사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었다는 점<sup>21)</sup>은 중국 문단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그 당시 여성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 계몽 담론에 관한 글들이 주를 이룬 잡지 《여성》은 정치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본다면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잡지임에 분명하다. 실제로 첸리쑤(錢理群)은 《중국운함구문학대계 中國淪陷區文學大系》에서 “《여성》은 일본인들의 정치적 선전 목적 외에도 중국 여성(婦女)<sup>22)</sup>들의 고난을 일정 부분 반영한 잡지”<sup>23)</sup>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현재까지도 엇갈리는 견해가 오고가는 잡지 《여성》은 매회 서

19) “《女聲》蘊含的三大意義：一、乃婦女呼聲；二、爲婦女而聲；三、由婦女發聲。” 王茜妮, 《關露在《女聲》中的言論研究》(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年), 8쪽.

20) 涂曉華, <上海淪陷時期女性雜誌比較——以《女聲》和《天地》爲中心>, 《蘇州教育學院學報》(2011年04期), 7쪽.

21) 진희진, <식민지시기 문학의 장에서의 여성 작가들: 2세대 여성 작가들의 작품과 삶의 경로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93집(한국사회사학회, 2012), 36쪽.

22) 본고에서는 중국어 텍스트에서 나오는 ‘婦女’를 ‘부녀, 부녀자’라는 명칭 대신 모두 ‘여성’으로 일괄 통일하였음을 밝힌다.

23) 錢理群 主編, 《中國淪陷區文學大系 史料卷》(南寧: 廣西教育出版社, 2000), 678쪽.

문에서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대동아공영을 고취시키는 이론과 글들을 수록했지만 5·4 시기부터 늘 대두되어 왔으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여성문제, 즉 젠더에 근거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였던 그 당시 여성을 계몽하기 위한 실천적 글쓰기가 포함된 잡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당시 여성으로서 여성의 문제를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심도 있게 다루어낸 관루는 문예 창작이 젠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될 것이라 했다.

“문예창작은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여성의 문제적 입장에 서서 여성으로서의 창작을 하고, 그녀들의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sup>24)</sup>

관루가 잡지에 실은 글은 130여 편이 넘는데, 그 중에 여성 담론에 관한 글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녀는 냉철하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여성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명분을 내세워 젠더의 담론을 감정적인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성적인 시각에서 다루었다. 그리하여 그 당시 여성 본연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고발한다.

“현재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모던 여성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정 반대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녀들은 자본주의의 문명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녀들은 심도 깊고 예리한 안목이 부족하여 자본주의 초기의 좋은 점들을 보지 못했으며, 그들의 자본주의 외형과 무자본주의의 본질에는 ..... 과학적인 두뇌와 인식이 부재하고, 규율화 된 생활이 없으며, 자본주의 사회 여성들에게 보이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독립적인 기능이 없다.”<sup>25)</sup>

24) “因為文藝作品是解決婦女問題的一種重要器具，站在婦女問題的立場上，我們要使婦女去創作，去創作表現他們她們生活的作品。” 芳君(關露)，〈從關於女性的文藝講到婦女〉，《女聲》，1943，12，4-5쪽.

25) “我們現在所見到的一般的摩登婦女呢，她們對於我們所希望的正好相反，她們認錯了資本主義的文明，她們沒有用更大的更深遠的眼光去看資本主義初期所有好的東西，他們資本主義的外形而無資本主義的實質……沒有科學的頭腦與認識，沒有紀律化的生活，沒有資本社會婦女的專長與獨立的技能。” 芳君(關露)，〈怎樣做一個新婦女〉，《女聲》，1942，3，12-13.

그 당시 자본주의 문명의 표상만을 쫓았던 신여성들, 소위 모던 여성걸이라 불리는 이들을 날카로운 어조로 비판한 글이다. 관루는 더 나아가 진정한 신여성이 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여성들의 사상을 계몽시키고자 했다.

관루의 글쓰기에는 비단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누구보다도 여성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있던 그녀였기에 그녀는 그 시대 여성의 '대변인'으로 자처하였다.

“여성으로 살기는 참으로 힘든데, 특히 지금 시대가 더 그렇다. 여성들은 모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남자들과 동등한 자격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자들의 분노와 외침의 소리가 들린다. ‘비합리적인 남자들아, 얼른 꺼져버려!’ 이러한 여성들은 자신의 독립을 원하는 동시에, 여전히 천대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sup>26)</sup>

“중국 여성 문제는 여전히 하나의 엄중한 사회문제이다. 문제의 초점은 여성은 여전히 진정한 해방을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성 생활의 표면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혼인 자유의 문제, 사회활동과 학구열 등은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여성들은 아직까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공간에 있으며, 대다수의 여성들은 이러한 폐쇄된 공간에서 여전히 흐느끼고 있다.”<sup>27)</sup>

여성의 억압에 대한 설명은 상당 부분 남성들과는 다른 사회적 영역에서의 이들의 위치에 관한 것들이었다. 많은 페미니즘 문헌이 여성은 “역사로부터 은폐되어 왔다”(Rowbotham, 1973)는 사실을 지적하고 반대하면서도, 남성이 공적 영역에 위치하고 여성이 사적 영역에 위치한다는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sup>28)</sup> 그러나 관루는 여성 운동 안에서의 여전히 소멸되지 않는 문제

26) “因此，做一個女人很難，尤其是現在。現在看上去，女人都能活動自由，能夠跟男人平起平立，但是在平起平立的時候卻暗暗聽見一些忿怒和吶喊：‘無理的家夥，快些滾回去！’這樣女人一方面要自己獨立，同時仍舊還是受氣！”芳君(關露)，〈談做人〉，《女聲》，1944，1，4-5。

27) “中國婦女問題在當今還是一個很嚴重的社會問題。問題的焦點，就是婦女還不會得著真正的解放。在婦女生活的表面上看來，例如婚姻自由，社會活動與求學都得著與男人同樣的權利，而在實際上，在衆人所不睹，燈光所不及的地方，大多的婦女都還在那長了鏽的鎖與鏈子之下愛泣的。”芳君(關露)，〈青年婦女的缺點〉，《女聲》，1942，5,1(1): 10。

점들을 파헤치면서, 은폐된 여성 문제와 여성의 현실을 주체적인 담론으로 제기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당시에 매우 진보적인 시각으로 중국의 여성 문제를 직시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시대와 맞물린 억압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관루는 자신의 일생을 바쳐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루에게 임무를 부여한 상부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들은 관루를 단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서 간주했으며, 이러한 인식은 젠더의 규제가 엄격하던 당시의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시대의 일면과 맞닿아 있다. 이로써 관루 내면에는 시대와의 관계망 속에서 고립된 고독으로 노정되는 유리된 자의식이 자리하게 됐다. 이러한 자신의 내면 의식을 ‘여성’이라는 거대 담론에 투입하여 울분을 토해냈고, 위로의 주체자로서 인식되기를 바랐으며, 더 나아가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자리 시키는 역할도 한 것이다.

관루는 <쌀값에 관하여 關於米价>라는 문장에서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심리를 은연중에 드러냈다. 그녀는 “중국인들은 밥량이 많아서 쌀을 과도하게 소비한다. 중국인은 쌀뿐만 아니라 빵과 같은 다른 종류의 것들도 먹어야 한다.”라는 커다란 명제 사이에 “문장을 쓰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글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 즉 사람들의 고난을 덜어주고, 불공평한 상황을 감소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글쓰는 사람들은 냉정한 두뇌를 가지고 정의감을 보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sup>29)</sup>라는 문장을 삽입한다. 이는 경제적 상황 속에서 쌀 대신 빵과 같은 대체 음식을 섭취해야만 하는 주장에 빗대어 관루 자신의 글쓰기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이에 맞는 테제로서의 문장을 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내재되어 있다. 자신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

28) 니라 유발-데이비스 지음, 박혜란 옮김, 《젠더와 민족: 정체성의 정치에서 횡단의 정치로》(서울: 그린비, 2012), 22쪽.

29) “做文章的人總想用自己底文字使一般人得到好處，把人們生活上的困苦減輕，把不公平的情形減少。因為寫文章的人一定是頭腦命清，而抱著正義之感的。” 芳君(關露). <關於米价>. 《女聲》，1945, 4, 3(12):3

는 상식 밖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불행한 상황을 은유적 글쓰기를 통해 토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글쓰기 행위를 통해 협력과 저항의 경계 안에서 타인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관루의 내적 의식을 엿볼 수 있다.

### 3. 윤패된 자의식의 함몰

완벽하고 강인하게 보였던 관루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점이 발견된다.

1943년, 일본에서 열린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여했을 때 관루가 일본 측으로부터 배분받은 강연 제목은 <대동아공영 大東亞共榮>이었다. 관루는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강연을 했다.<sup>30)</sup> 그녀는 일본에서도 임무를 성공하며, 당에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했다.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을 제창하고, 왕징웨이 정부가 일본의 편에서 참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제2차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가한 후 관루는 잡지 통신란의 문장들인 <동경 메시지 東京寄語>, <동경 메모리 東京憶語>, <몇 가지 기억 几个回憶> 등에서 '혁명 간첩'으로서의 불안한 모순 심리를 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즉 관루는 '대동아공영'에 대한 정치적 내용을 서술하는 대신 사변적인 내용의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회피한다. 그렇게 선택한 글쓰기 패턴은 바로 일본의 '좋은 집'을 서술하고 피점령 지역 상하이의 열악함

30) 예를 들어 중일 쌍방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사람들이 교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제부터 언어를 많이 배워야 한다는 등의 내용. 김정림, <민국시대의 여인들: 그 정은 세월이 지나 추억이 되었네> (계명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중국어통·번역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30쪽 참고. 이 논문은 叶細細, 《民國女子: 此情可待成追憶》(广西: 广西師範大學出版社, 2009)의 중문 단행본을 번역한 논문이다.

을 토로하는 대조의 방식이었다.

“나는 일본에 도착한 이래로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나는 동경의 많은 거리를 지나면서 경찰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다가 나는 상하이 거리에 누워 있는 많은 사람들, 소매치기들, 늘 순찰과 감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생각났다. 그들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불쌍한 나의 조국이여!”<sup>31)</sup>

관루는 동경에서 회의에 참가하는 시간 동안 견딜 수 없는 압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느꼈다.

“점심식사 후 머리에 열이 났고, 온몸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기쿠치간(菊池寬) 선생의 안경이 눈에서 벗겨져 나와 공중에 흔들리는 모습 등 눈앞의 모든 사물들의 모양이 변하는 현상을 체험했다.”<sup>32)</sup>

그녀는 <동경 메모리>라는 글을 통해 회의의 내용 및 그 정신을 전하면서 도 자신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해 자주 토로하는 내용의 글을 담았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하나는 관루가 의도한 하나의 ‘책략’으로서, 비정상적인 상태를 명분으로 대회에 대한 내용을 분산시키는 작용을 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 겪었던 심리적 압박으로서 정신적 불안감을 잉태했다는 의견이다.<sup>33)</sup>

관루는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대외적으로 ‘한간’이라는 오명을 입게 된다.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모두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상하이로 돌아온 그녀는 <시사일보 時事日報>에 실린 문장을 보고 또 한 번 좌절했다.

“일본이 공영권을 도모한다는 헛소리를 알리는 자리에서 관루는 또 영광스럽게

31) “自從我到日本以來，我不會見過一個行乞的人，在東京經過很多的街道上，我不會看見一個警察，回想到躺在馬路上的我們，大批的小偷民衆，時時被巡捕抓著鞭打的民衆，我不禁流下眼淚來，我的多情多難的祖國！”關露。〈東京寄語〉。《女聲》，1943，5：12。

32) “午飯後我覺得頭在發暈，身體飄蕩起來。我眼前的東西都變了樣子；菊池寬先生的眼鏡離開了眼睛，在空中搖晃起來；草野先生的頭髮像秋天的稻子，在頭頂發著萬道的金光……”關露。〈東京憶語〉。《女聲》，1944-10.2 (6)：14-15. 37。

33) 王茜妮，위의 논문，30쪽。

대표를 맡았고, 염치라고는 조금도 없이 적의 수도에 가서 대표회의에 참가했다. 그녀는 완전히 기형적인 상태에서 성장한 뻔뻔한 여류작가이다.”<sup>34)</sup>

대외적으로도 압박이 가해지는 이 시점의 글쓰기는 관루의 《여성》 편집위원 시절,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글쓰기였을 것이며 그러한 심리가 글에 투영되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혁명 간첩으로서의 관루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호명 받았지만, 그 호명으로 부여된 위조된 자의식은 자신의 정체성과 혼돈되며 자아의 분열과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위기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관루는 ‘죽음’에 대해 사색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죽음’은 두려운 일임에 틀림없으나, 그보다 더 두려운 점은 아무도 모르게 태어났다가,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내가 살아 있다고 해서 그 누구에게도 좋은 일로 작용하지 않으며, 죽고 난 후에는 또한 그다지 해를 끼치는 일도 없다. 나의 혀, 손톱, 머리카락, 눈동자는 모두 내가 죽으면 가져갈 것들이며,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남겨놓지 않는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은 곧바로 나를 잊을 것이며, 마치 이 세상에 내가 왔다 간 줄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은 태어난 적도 없는 것 같이 느낄 것이다. 이 얼마나 비통한 일인가!”<sup>35)</sup>

그녀는 지하 공산당원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살아왔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에 걸어서 그 어떤 후회나 원망을 품지 않았다. 하지만 이중적인 삶을 유지해야 했던 한 작가의 삶에 내재한 비통함과 애통함을 읽어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죽음’이라는 것의 원초적인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 말하는 문장 속에서 홀로 외롭게 그 고독의 길을 걸어 나가야만 했던 관루의 처지가 드러난다.

그 후 1955년, 관루에게 맨 처음 ‘혁명 간첩’의 중임을 맡기고, 훗날 그녀를

34) 김정림, 위의 논문, 30쪽 재인용.

35) “死是一件可怕的事情，但是，我又想更可怕的是在偷偷的活了之後又偷偷的死去。在活的時候沒有人感到我在死。我活的時候沒有人覺得有好處，死了以後也沒有人覺著有害處。我所有的只是我的舌頭和指甲，頭髮和眼珠，我死的時候把這些都帶去，什麼也不留；在我死了之後，人們立刻就忘記我，好像我沒有來過這世界，世界上從來沒有生過我一樣。這是多麼的悲哀啊！”關露。〈東京憶語〉，《女聲》，1943，6：14。



변호해주던 판한넨(潘漢年)이 반동분자로 몰리게 되면서 관루까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1967년, 또 다시 날조된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혀 1975년까지 8년을 더 살게 된 것이다. 1945년 이후의 시기를 봤을 때, 국가와 당은 관루의 첩보원 임무 성공을 높이 추대하기는커녕, 그녀를 회복시키거나 책임질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당의 대처는 당시 시대의 불합리함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의 일면이 드러난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5·4 이래로 해방과 계몽의 측면에서 ‘여성’이라는 젠더의 규제를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결국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관루라는 여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관루는 ‘친청(秦城)<sup>36)</sup>에서 쓴 시 11수(秦城詩草十一首)’를 남겼다. 11편의 단편 시는 모두 수감 생활 중 느꼈던 찰나의 감정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겨울의 철문을 꼭 닫아 잠가 보아도,  
지조 있는 한 조각 마음위로 눈들이 쌓인다.  
무정하게 정의를 움켜쥔 강철 파이프가,  
사람을 위해 날이 새도록 울부짖는구나.

<수도관 水管> 전문<sup>37)</sup>

이 시 앞에는 ‘옥중의 수도관이 고장 나서 밤새도록 물이 새어나왔다. 그 소리가 마치 울음 섞인 하소연 같아서, 사람을 잠 못 들게 한다.’<sup>38)</sup>라는 짤막한 글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아마도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를 적어놓은 글귀일 것이다. 이 시에서 관루는 ‘고장난 수도관’을 보며 자신의 내면과 마주한다. 수도관 사이로 흘러나오는 물소리에 빗대어 관루 자신의 울음 섞인 하소연을 드

36) 《李銳詩詞本事》라는 책을 통해 베이징 친청 교도소의 당시 1967-1971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교도소에 수감된 501명의 죄수들 중에, 사국급(司局級) 이상의 간부들이 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중 성급(省級) 간부들은 69명에 달했다. 이들 중, 폭력을 당해 불구가 된 사람 20여명, 고문으로 죽은 사람 29명, 투신자살 5명, 정신병에 걸린 사람 60명 이상이었다. 당시 그 곳은 파시즘식의 비인간적인 학대 장소나 다름없었다. 韓三洲, <丹心不怯斷頭台——讀《關露啊關露》>, 《中國經濟時報》(2001年4月12日)참고.

37) 鐵門緊鎖冬無盡, 雪壓堅貞一片心./鋼管無情持正義, 爲人申訴到天明.

38) 獄中水管坏了, 通宵放水, 聲如哭訴, 令人不能安眠

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캉은 “상상계는 언어의 세계로 진입하기 이전의 영역으로서 자아와 세계 이미지와의 동일시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상상계의 자아는 거울이라는 매체에 투영된 이미지다.”<sup>39)</sup> 라고 하였다. 시인은 상상계를 통해 한 사물에 자신과 동일시되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여기에는 시인의 ‘자아방어기제(defense mechanism)’가 작동한다. 자아방어기제는 “불안을 피하고 본능욕구를 부분적으로나마 충족시킬 때 필요하며, 마음의 갈등과 충돌이 해소되고 평정된다. 이 과정에서 본능적 욕구와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타협이 일어나고 절충형성이 이루어진다. 욕구와 초자아가 양보하여 타협을 이룬 것이 절충형성이며 나름대로의 욕구 충족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sup>40)</sup>이다.

관루는 ‘고장난 수도관’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과 조국으로부터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하소연에 그칠 뿐, 그 어떤 원망의 목소리나 배반의 심리는 보이지 않는다. ‘지조 있는 한 조각 마음(堅貞一片心)’이라는 시어의 선택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그녀는 절제된 언어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시 창작 행위를 통해 자신의 비통한 삶을 다독이며 힘든 시간들을 버텼다.

시는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느낌을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를 통해 내면과 외면,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소통을 시도하는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자아와 외부세계 사이에 벌어진 간극의 틈을 메우고 인간 내면의 억압된 정서와 욕구를 표출한다. 관루가 옥중에서 쓴 몇 편의 시는 그녀의 창작 욕구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결과물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8년이라는 기나긴 수감 생활 속에서 자신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하나의 치유의 방법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9) 김석, 《에크리-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파주: 살림, 2007), 149쪽. 권성훈, <일제강점기 자화상 시편에 대한 정신분석>, 《한국학연구》 제42집(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45쪽 재인용.

40)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서울: 이우, 2006), 160쪽. 권성훈, 위의 논문, 44쪽 재인용.

그러나 줄곧 시대와의 관계망 속에서 윤패된 관루의 취약한 자의식은 국가와 집단이라는 이념에 함몰되고, 붕괴되는 경향을 보인다. 출옥 후 5년만인 1980년, 관루는 뇌혈전증이라는 증상을 앓게 되고, 몇 번의 혼수상태를 겪었다. 어느 날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그녀는 “당신들 나를 살려놓고 또 뭘 하게 하려는 겁니까? 살아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sup>41)</sup>라고 하였다.

1982년 3월 23일, 중앙공안부가 <관루 동지에 대한 무죄 판결문 關於關露同志的平反決定>을 발표하며, 1940년대에 ‘혁명 간첩’으로 활동했던 관루의 임무가 처음으로 공개됐으며 이를 통해 그녀는 ‘한간’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위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된 순간이었다. 그 후 관루는 자신의 회고록을 집필하기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굴곡 많았던 삶의 여정을 본인 스스로가 마감했다.<sup>42)</sup>

윤패된 자의식의 와해는 정신적인 영역을 초탈하여 육체적인 건강을 훼손하고, 이성을 제어할 수 없는 극단적 상황에까지 치닫게 된다. 개인의 자의식은 이데올로기라는 거대하고 초극적인 외부를 만날 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절감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루는 자신의 자의식을 윤패시키고 붕괴시켰던 주체, 즉 당에 대한 그 어떤 원망 섞인 울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반적인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충성심의 경지에서 이탈하지 않으며 생의 끝자락에서 아래와 같은 마지막 발언을 한다.

“나는 당에 충성을 다했고, 내 인생에 그 어떤 원망이나 후회는 없다. 만약 다시 한 번 나의 인생에 있어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나는 끝까지 당의 지시에 따라 나의

41) “你們又救我干什么？醒過來我更痛苦。”于繼增，〈關露：謀海沉冤四十年的悲情人生〉，《文史博覽》(2007年08期)，22쪽.

42)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한 것은 그녀의 플라스틱 인형이었으며, 그녀의 유품인 상자 속에는 40년이 넘도록 간직하고 있었던 옛 여인 왕빙난과의 연애편지들과 사진이 있었다. 왕빙난(王炳南)은 당의 총애를 받았던 철저한 공산주의자로서 관루가 변절자로 낙인찍히게 되자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였다. 黃衛，〈“紅色間諜”關露之死〉，《中國新聞周刊》(2009年30期)，82쪽 재인용.

길을 갈 것이다. 그러한 선택이 나를 또다시 고달픈 삶으로 이끈다 하더라도, 또다시 뜨거운 불속에 타들어가더라도, 나의 생명과 명예 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길 앞으로 용감하게 나아 갈 것이다!”<sup>43)</sup>

긴장과 압박의 연속이었던 ‘혁명 간첩’으로서의 삶, 다년간 따라붙은 ‘변절자’라는 꼬리표, 사랑하는 연인과의 뜻하지 않은 이별, 8년간의 옥중 생활 등의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이 관루의 인생을 관통하였다. ‘대의’라는 명목 하에 진행된 한 순간의 선택이 개인의 운명을 뒤바꿔 놓았으나 정작 그 운명의 주인공은 자신에게 덮친 모든 심연의 고독을 스스로 감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함몰된 자의식을 초월하기에 이른다. 관루의 마지막 발언은 이념이라는 거대한 타자가 인간에게 행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에, 관루 개인의 삶이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오며 동시에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 4. 나오며

살아있는 동안 젠더와 이념의 희생양이었던 관루의 삶은 그녀가 이 세상을 등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조금씩 인정받게 되고, 추앙받게 된다. 1982년 12월 18일, 문화부와 중국 작가협회연합은 관루를 추모하는 좌담회를 열었는데, 이때 저우양(周揚), 덩링(丁玲), 아이칭(艾青) 등 40명이 넘는 문예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관루를 그리워하고 추도하는 여러 글들을 발표했다. 그 중 덩링의 글은 관루라는 개인의 비극적인 운명을 다음과 같이 위무한다.

43) “我對黨忠貞不二，一生無怨無悔。如果我能再次選擇自己的人生之路的話，我仍舊會按照黨的指示走我走過的路。哪怕這條路再艱險，再坎坷；哪怕需要在烈火中焚燒我三次，連同我整個的生命和全部的名譽都毀掉，我仍舊會一往無前！”柯興，〈生命與忠誠——女作家關露的諜海生涯〉，《前進論壇》(2004年07期)，41쪽에서 재인용.

그녀는 매우 선량한 사람이나, 심지어 약간은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한다. 평생 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평생 홀로 살면서 자신의 아픔을 혼자 감당했다. 심연의 고독을 경험했을 것이다. 우리 사회주의 국가는 빛이 충분하나, 그 빛이 그녀를 비추지는 못했다.<sup>44)</sup>

관루의 인생은 영화 《색,계》의 여주인공을 떠올리게 되며, 영화 속 인물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다간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어떤 역사적 사명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전복되고 그 전복된 삶 속에서 차마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 숨겨야만 하는 것들을 감내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그녀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1930년대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장아이링, 덩링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러나 역사가 부여한 그 ‘어떤’ 사명에 의해 글쓰기 패턴을 비롯한 인생 대부분의 것이 전복된 작가 ‘관루’라는 인물에 대해 집중 조명하였다.

관루는 국내에 비교적 생소한 작가이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 속에 스며든 흔적들을 따라가 보면서 ‘회색시대’ 시대 속 글쓰기, 다시 말해 잡지 《여성》의 편집위원 시절의 글쓰기에서 드러나는 현실 대응 방식과 패턴 양식에 대해 분석을 시도했고, 신여성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당시 ‘시대가 선택한 여성 간첩’이라는 명분하에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관루’라는 작가의 운명을 통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해보았다.

관루는 ‘저항적 작가’임에 분명하며, ‘저항’의 의식이 뺏속까지 배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1930년대 좌련 등 다양한 좌익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한 점, 투철한 전투정신으로 무장한 그녀의 항전시 등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저항’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녀가 ‘혁명 간첩’으로서의 특수 임무를 맡으면서

44) “她是一个善良的人，甚至有点傻，总是牺牲自己。她的心灵负了伤，孑然一身。没有亲人，她是很寂寞的。我们的社会主义国家应该充满阳光，但是阳光照不到她身上。”尹骥，〈女诗人关露的苦难人生——一个三十年代左翼作家的遭遇〉，《炎黄春秋》(1994年08期)，53쪽에서 재인용.

잠복된 '저항'의 삶을 살았다는 점이다.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임무는 역설적이게도 저항의 힘을 뺀 채,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저항의 의식'이 없었다면 수행하지 못했을 임무였을 것이다. 관루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저항'의 에너지는 때로 실천적인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매우 소극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지만 그 맥락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관루의 일생 중에서 1942-1945년의 시기의 글쓰기 패턴을 파악해보면 그 당시의 정치적 지형, 역사의 굴곡, 여성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뒤엉켜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같은 역사의 굴곡을 경험했던 많은 지식인들과, 고달픈 삶으로 이끌었던 거대한 타자 집단의 참회와 노력이 관루의 평전 및 여러 텍스트를 통해 전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역사의 어두운 모퉁이 속에서 소외된 여성 지식인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쉽게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을 말소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관루의 자의식과 문학관 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관루라는 개인의 삶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굴절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서도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 말, 조선 지식인들의 변절 및 권력 지향성이 도드라진 때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관루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판단된다.

#### < 參考文獻 >

丁言昭 編選, 《關露啊關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1.

丁言昭, 《關露傳》, 上海: 上海文化出版社, 2009.

[美]傅葆石 著 張霖 譯 劉輝 校, 《灰色上海, 1937-1945 中國文人的隱退、反抗与合作》,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12.

錢理群 主編, 《中國淪陷區文學大系 史料卷》, 南寧, 廣西教育出版社, 2000.

- 唐藝多, 《戰爭夾縫中的“新女性”》,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 王茜妮, 《關露在《女聲》中的言論研究》,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丁言昭, <關露生平的一些史料>, 《新文學史料》 1989年04期.
- 柯興, <生命与忠誠——女作家關露的諜海生涯>, 《前進論壇》 2004年07期.
- 韓三洲, <丹心不怯斷頭台——讀《關露啊關露》>, 《中國經濟時報》 2001年4月12日.
- 于繼增, <關露:諜海沉冤四十年的悲情人生>, 《文史博覽》 2007年08期.
- 叶細細, <關露 諜海才女的傳奇人生>, 《八小時以外》 2011年07期.
- 夏明亮, <一个不該被遺忘的女杰——共產黨員關露生平剪影>, 《党史博覽》 1998年10期.
- 周宗奇, <与魔鬼共舞——記關露打入汪偽76号特工總部>, 《滄桑》 2001年02期.
- 王嵐, <關露——敵偽76号里的神秘女子>, 《党史文苑》 2006年15期.
- 尹驥, <女詩人關露的苦難人生——一个三十年代的左翼作家的遭遇>, 《炎黃春秋》 1994年08期.
- 涂曉華, <上海淪陷時期女性雜誌比較——以《女聲》和《天地》爲中心>, 《蘇州教育學院學報》 2011年04期.
- 김 석, 《에크리-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파주: 살림, 2007.
- 나라 유발-데이비스 지음, 박혜란 옮김, 《젠더와 민족: 정체성의 정치에서 횡단의 정치로》, 서울: 그린비, 2012.
-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 서울: 역사비평사, 2003.
-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서울: 이유, 2006.
- 권성훈, <일제강점기 자화상 시편에 대한 정신분석>, 《한국학연구》 제42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 김용우, <프리모 레비(Primo Levi)의 “회색지대”>, 《역사와 담론》 제46집, 湖西史學會, 2007.
- 김정림, <민국시대의 여인들: 그 정은 세월이 지나 추억이 되었네>, 계명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중국어통·번역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신동순, <1940년대 상하이(上海) 출판문화정책과 대중문학잡지의 생존 전략: 『만상(萬象)』, 『대중(大衆)』, 『바이올렛(紫羅蘭)』, 『춘추(春秋)』를 중심으로>, 《中國現代文學》 제56권,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1.
- 이혜진, <문인 동원의 병참학>, 《아태연구》 제20권 제3호,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2013.
- 전희진, <식민지시기 문학의 장에서의 여성 작가들: 2세대 여성 작가들의 작품과 삶의 경로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93집, 한국사회사학회, 2012.

## &lt; 中文提要 &gt;

關露(1907-1982)是二十世紀三十年代上海有名的女性詩人和小說家，有著與其名聲相符的優秀文學才能，與張愛玲，蘇青，潘柳黛並稱‘民國4大才女’。1939年，關露作為共產黨機密要員與國民黨接觸搜集情報，開始了她波瀾萬丈的間諜生涯，但是，完成任務之後的她得到的卻是‘漢奸’的稱呼。雖然在1982年無罪獲釋，但是不久之後，她卻以自殺這一悲劇的方式結束了自己的生命。

海外中國學者傅葆石(Poshek Fu)曾經使用‘灰色地帶(Gray Zone)’這一概念對當時身處‘灰色上海’的中國知識人的應對方式進行了劃分，他認為當時有三種應對方式，分別是‘隱逸（消極抵抗）’、‘抵抗（積極抵抗）’和‘合作（親日行爲）’方式，這種劃分為重新架構上海的文化空間提供了契機。本文從隱逸、對抗、合作的應對方式的角度出發，通過分析關露在這一時期連續登載於《女聲》雜誌上的文章，關注其內涵，並嘗試反思其中所透露出的當時的各種問題意識。

關鍵詞：關露、灰色地帶、《女聲》、上海淪陷時期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6. 30.	2014. 7. 15.	2014. 7. 23.	2014. 8. 12.	2014. 8. 31.